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99호

Monday, September 16, 2024 A

“트럼프, 두번째 암살 시도 당해”... 용의자 체포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50일 앞둔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용의자는 체포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발생했다. 주요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약 두 시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번 홀에서 골프를 치던 중, 용의자가 골프장 밖에서 율타리를 통해 AK 소총으로 추정되는 총구를 들이댔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걸으며 주변을 경계하던 경호국 요원은 이를 포착해 즉각 대응사격 했다. 용의자는 총을 버리고 자신의 검정색 닛산 SUV 차량에 올라 황급히 달아났다. 경호국은 경찰에 이를 통보했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셰리프국이 골프장 인근인 마틴카운티 소재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을 세워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두 개의 배낭가방과 고프로 동영상 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즉각 백악관에 보고



1 용의자가 총격을 시도한 골프장 수풀 언저리 장소. 2 평소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3 용의자가 탔던 차량을 경찰차들이 에워싸고 있다. [전체사진 = 로이테]

대응사격 했다. 용의자는 총을 버리고 자신의 검정색 닛산 SUV 차량에 올라 황급히 달아났다. 경호국은 경찰에 이를 통보했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셰리프국이 골프장 인근인 마틴카운티 소재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을 세워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두 개의 배낭가방과 고프로 동영상 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즉각 백악관에 보고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암살 시도를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 자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

통령은 이날 총격 사건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 인근에서 총격이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 검찰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난 안전하고 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

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I will never surrender)”라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암살 시도 사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물론 미국민들 전체가 충격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클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았으며 수사당국은 이를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 지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경호 지원을 받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신병 강화 노력이 요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이후 최저

(한국갤럽 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동반 기록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다 불거진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응급실 대란’ 국민 불안이 엄습하면서 민심이 악화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나타나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 역시 3%포인트 내려, 현 정부 들어 최저인 28%를 기록했다.

당정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는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탓이 크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70%

로 조사돼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는데, 부정 평가한 이유 중 가장 많이 꼽힌 게 ‘의대 정원 확대’(18%)였다.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데도 여권이 별다른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이 지난 6일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된 2025년 정원도 백지화를 요구하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와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증원 유예’→‘2025년 증원도 논의 가능’과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즉각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부분 “의료개혁 내용 자체엔 국민 지지가 많고 방향도 틀리지 않았지만, 국민 불안과 불평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한 참모는 “애초 보수 성향이 많은 의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내부 반대도 많았다”며 “하지만 이미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이제 와서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자체가 의료개혁이 필요한 이유인데, 우리 입장에서 자각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진·박태인 기자

▶2면 '지지율' 로 이어집니다



유럽, 수십 년 만의 폭우 루마니아 등 유럽 동부를 강타한 수십 년 만의 폭우로 14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주택 수천채가 물에 잠기는 등 물난리가 속출했다. 루마니아 동부에서 14일 현재 홍수로 4명이 사망했으며 체코에서는 북부와 북동부 지역이 홍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철도 수십 개 노선 운행이 중단됐으며 수도 프라하에서는 블타바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방벽이 설치됐다. 사진은 체코 제세닉 지역의 강이 범람 위기에 빠졌다. [로이테]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9일 만에 응급실 또 찾은 윤 대통령 “직통으로 의견 달라”

의대 정원 확대, 부정평가 원인 1위 윤 대통령, 의료진 만나 “믿어 달라”



추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한 명절 인사 영상을 대통령실이 13일 공개했다. 김 여사가 명절 메시지 영상에 출연한 건 1년 만이다. [사진 대통령실]

▶1면 ‘지지율’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윤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종종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란 말을 한다고 한다. 의료개혁을 포함,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항이 있더라도, 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회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최근에도 했다고 한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성과 보고대회 및 3기 출범식에서도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정부는 인기에만 신경 쓰며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

롭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집권 3년 차, 임기의 반환점을 돌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언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20%대 안팎의 지지율론 국정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전주(錢主)가 최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권 차기 주자군과의 관계는 여전히 껄끄럽다. 한 참모는 “윤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강조한다고 현장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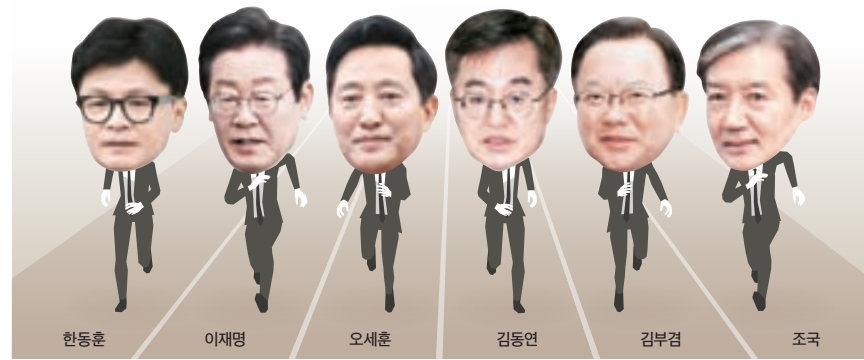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9일 만에 다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오해’ ‘진정성’ ‘경청’ 등의 표현을 썼다. 4월 대국민 담화에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업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던 태도와 달랐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료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며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의대 정원 문제에 많이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허진·박태민 기자**



한동훈, 쟁점 통해 반전 시동... 이재명, 민생정치 고삐 죄기

정치 리더 추석 이후 행보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 지도부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각각 경부선·호남선의 출발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하던 서울역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 이후 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정치적 처지가 드러났다. “쏟아졌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13일 한동훈 대표 취임 후 50여 일의 기간을 돌아보며 한 말이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 득표율로 당선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민심이나 당정 관계 등에서 잇따라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당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다. 한 대표가 취임한 직후로부터 7%



포인트 떨어졌다. 당시 민주당을 8%포인트 앞섰으나 이젠 5%포인트 뒤진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한(尹·韓) 갈등도 난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7월 25일), 90분 비공개 회동(7월 30일) 등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있었지만, 여전히 껄끄럽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동반 위기 속에 ‘원탁’이 돼야 당정 모두 반등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쌓였다”(여당 관계자)는 얘기도 있다. 한 대표 측은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물가 안정 등 그간 힘을 실었던 민생 이슈와 ‘티메프, 덤페이크 사태’ 등 사회적 문제에 실시간 대응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의·정 갈등 문제다. 한 대표는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시하고, 여·야·의·정 협의회를 띄워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산과의 껄끄러운 상황을 감수하고 응급실 위기를 부각한 것도 더 큰 화를 막으려는 한 대표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13일에도 “의제 제한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모여달라”고 호소하며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회를 띄우려 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도 증원을 건드리는 건 국민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섰고 대한사협회·전국외과대학교수 비상대책회의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참여를 공식 거부했다. 민주당도 소극적이다. 그에겐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인 셈이다. “첫 대표 2년이 집토끼를 잡는 기간이었다면, 대표 2기는 산토끼를 잡고 중도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지난달 18일 민주당 대표로 연임한 이재명 대표 2기에 대한 친명 인사의 평가다. 실제 이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한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의료대란 관련,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을 통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가산금리 합리화 ▶쌀값·쇠고기값 안정책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도 논의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8월 29일)는 당부도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행보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쟁을 부르는 계엄령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김부겸 전 총리마저 “돈급없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과 채 해병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처리하다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료공백 해결이 우선”이란 제지를 받은 일도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당명 과제는 10월 1심 판결을 넘을 수 있을지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위반),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손국희·김효성 기자**

워싱턴 날씨 (°F)

17일(화)	72~70	☁	20일(금)	77~66	☁
18일(수)	76~67	☁	21일(토)	73~62	☁
9월 16일(월)	78~68	☁	19일(목)	75~67	☁
			22일(일)	72~59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저렴 가격/좋은 위치/리모델링
SOLD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의사의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페어팩스 카운티 데이터 센터 조닝 확정

메트로역 1마일

주택가 200피트 떨어져야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조닝 규제를 강화한 법률을 8대2로 승인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은 “수년간에 걸친 갈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단체들은 민주당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건설자본과 결탁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 데이터센터는 메트로역으로부터 최소 1마일, 주택지역으로부터 2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산업지역에 건설되는 데이



코어사이트 2차 데이터센터 캠퍼스

터센터도 8만스퀘어피트 실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소음 공해와 조망권 침해 타당성 검사와 실내 수용 인원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법률은 11월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이전 조닝 규정으로 카

운티 정부 규제 관련 심의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심의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6곳 중 한 곳은 메트로역과 1마일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탈락이 유력하다. 다른 한곳은 주택지역과 불과 130피트 남짓한 곳에 위치해 재심의와 함께 탈락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데이터 센터 조닝 개정 문제로 3년 이상 주민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단체들은 주택지역으로부터 최소 1천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로 민주당 소속 수퍼바이저들이 세금 수익 등을 이유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주장해왔다.

김옥재 기자

답답했던 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2024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 이민	1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22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1년 11월 22일 (2021년 11월 15일)	2024년 7월 15일 (2024년 6월 15일)
	2B	2016년 5월 1일 (2016년 5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0년 4월 1일 (2010년 4월 1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1월 1일)
취업 이민	4	2007년 8월 1일 (2007년 8월 1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3월 15일 (2023년 3월 15일)	2023년 8월 1일 (2023년 3월 22일)
	3	2022년 11월 15일 (2020년 12월 1일)	2023년 3월 1일 (2023년 2월 1일)
	4	2020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일)	2021년 5월 22일 (2021년 1월 8일)
5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4년 9월 우선일자, 자료:국무부

국무부,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

가족이민 일부 순위 소폭 개선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제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중산층 50% 소셜시큐리티 연금 “제대로 모른다”

미국 중산층 절반 이상이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가 최근 투자 자산 15만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연소득 5만달러(부부 혹은 파트너 7만5천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25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53%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이 연금이 자신의 은퇴 플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은퇴 직전 세대인 X세대와 30-4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이 비율이 각각 51%와 60%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언제 수령하는게 가장 좋은지, 수령시기에 따

라 매월 은퇴연금 수령액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다고 답한 비율이 55%였다.

이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는 시기를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41%, X세대는 38%였다.

김윤미 기자

2개뿐인 희귀 10센트 최소 50만불 낙찰 예상

주조국 표시인 S 글자 없어

희귀한 10센트 동전(다임·사진)이 46년 만에 시장에 나왔다. 예상 낙찰가는 최소 50만 달러다.

수집품 경매업체 그레이트콜렉션스가 최근 희귀 다임을 경매에 부쳤다. 1975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주조국에서 만들어진 이 동전이 희귀한 이유는 주조국을 나타내는 S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주조국 마크가 없는 동전은 ‘노



것이기에 유통되는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에스 다임’으로 불리며 수집가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주조국의 실수로 만들어진

1975년에 만들어진 노 에스 다임은 현재까지 2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1975년산 노 에스 다임이 거래되는 것은 1978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매에 부처진 이 동전은 12일 현재 28만 달러까지 입찰 된 상태다. 다만 경매 종료까지 4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실제 낙찰액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동전의 최종 낙찰액은 5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웨이크쉐, ‘무료 치킨버거’ 행사

10달러 이상 구매 하면 공짜

웨이크쉐이 일요일마다 무료 치킨버거(치킨 쉐)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난 8일에 개시했다.

12일 NBC에 따르면 웨이크쉐는 일요일마다 10불 이상 구매 시 치킨버거

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문 건당 1개로 10달러 이상 주문을 두 번 하면 치킨버거 2개를 공짜로 즐길 수 있다.

다만, 해당 이벤트는 웨이크쉐 앱을 통한 주문으로 제한된다. 앱 주문 시 코드(CHICKENSUNDAY)를 입력해야 한다.

서재선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립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축
창간 23rd 기념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워싱턴 중앙일보사의 창간 23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인 사회의 길잡이,
한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 참여 문의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의 향군 참여를 환영합니다. (703-403-708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한인 총격 사망” 프레즈노 모임 중 피격

한인 남성이 증가주 프레즈노 지역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프레즈노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쯤 프레즈노 지역 노스에 비스트리트 인근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총격을 받았다.



12일 프레즈노경찰국은 이날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실베스터 최(35·사진) 씨라고 밝혔다. 총격 당시 일행이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한 관계자는 지역 매체인 프레즈노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총을 쏘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559) 498-7867, (559) 621-2452

장영기 기자



시니어센터 추석 잔치 성황 12일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에서 ‘2024 추석 큰 잔치’가 열렸다. 이날 시니어센터 측은 행사에 참석한 시니어들에게 한식 점심을 제공하고 쌀 한 포대씩을 전달했다. 시니어센터 장구반 수강생들이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행사가 열린 2층 강당을 돌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 한인축제 빨간불... “이사진 자격정지”

차 회장 등 3명 선임 무효 소송 법원, 제명 이사 3명 손들어줘

한인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진이 파행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이사진 5명 중 4명의 선임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제5회 한인 축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킨)은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이사자인 원고측(김준배·박운숙·최일순)에 따르면 판사는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 벤 박씨를 선임 이사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원고들을 제명할 이유로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한 나에게 공공 유용 및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자격도 없는 이사회와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느냐”며 반발했다. 결국 배무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중 제명 대상인 3명을 제외한 과반인 4명이 제명을 찬성해 의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신규 이사 3명의 이사회비 5000달러 미납 사유를 들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사회가 당사자들을 제명하자 2024년 2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신임이사 3명 선출 무효 ▶제명 절차 무효 ▶알렉스 차 선임 이사장(현 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긴급 가처분(TRO)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회는 2023년 1

월 23일 이사 선출 이전에 존재했던 배무한, 박운숙, 김준배, 최일순 이사 등 4명 체제가 됐다”며 “2024년 1월 3일 이사회가 이사 3명을 제명할 뒤 의결한 모든 결정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이사가 된 로렌스 김씨 역시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이 무효가 됐다.

이와 관련 원고 측 김준배씨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곧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혔다. 알렉스 차 회장은 “현 이사회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하면 1심 판결은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될 수 있다. 이사회는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 51회 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까지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설립한다

설립 51주년을 맞은 한국 국기원이 캘리포니아 등 미국 7개 주에서 지부 추진에 나선다. 국기원은 캘리포니아 지부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고, 거주 태권도 사범육성 등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12일 캘리포니아태권도위원회(CTC)는 국기원이 거주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사범 신용섭씨를 거주지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뉴저지, 뉴욕, 사카고, 플로리다, 워싱턴DC, 텍사스에도 지부장을 임명했다고 한다.

CTC는 2019년 한인 사범 30여명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김진섭 위원장도 국기원 거주 지부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김진섭 CTC 위원장은 “지난 9월 국기원이 신용섭 거주 지부장을 임명했고, 곧 거주 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거주지부 사무국을 마련해 내년부터 태권도 사범 양성과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는 정부 산하기관 태권도진흥재단과 민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이 태권도 진흥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 ‘무도’ 태권도 사범 육성사업 및 공인 단증을 발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태권도 학술 연구,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세계 태권도 한마당, 외국인 태권도 보급’ 등이다.

국기원 거주 지부는 ▶공인단증 심사 및 발급 ▶국제사범자격증 안내 및 취득 지원 ▶태권도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태권도장 통합관리시스템 보급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신용섭 거주 지부위원장은 “국기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단증을 발급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글로벌 단증 발급단체로 태권도 사범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무도 태권도 연구발전 및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거주에



국기원 거주 지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용섭(왼쪽) 사범이 김진섭 CTC위원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서는 한인 관장 포함 약 1400개 도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기원 거주 지부를 설립하면 거주 태권도인의 교류협력 확대와 세계가 인정하는 공인 단증 발급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기원 거주 지부 사무국 후보자는 LA, 샌프란시스코, 어바인, 풀러튼이다. 지부 설립과 동시에 회원등록도 받고 있다. 신규 회원 태권도장의 학원생이 100명 미만일 경우 태권도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무료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문의:(213)369-1904, jinseobtkd@gmail.com 김형재 기자

이민자 위한 영어습득 책 발간

이용석 아이오와대 명예교수



이민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들라면 역시 ‘영어’다. 비영어권으로 중요한 협상이나 논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깊이 이해하고 대화로 기선을 잡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동안 비영어권의 영어 습득에 관한 책을 써왔던 이용석 교수(아이오와 주립대 명예교수·사진)가 최근 그 같은 애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Achieving True Fluency in English’를 출간했다. 이 교수에게 책을 쓴 동기와 내용을 물었다.

득하고 활용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은퇴 후 영어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정리할 필요를 느껴왔는데 마침내 그러한 바람을 현실화한 것이다.”

-책은 주요 내용은.

“비유적인 언어 표현(figure of speech)들에는 메타포어(metaphors), 구어(nonliteral phrasal verb), 과장어(hyperbole), 통속적인 표현(colloquial), 이디엄(idioms) 등이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기에 오히려 그 효과가 크지만, 대체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서 별도로 습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다. 이 책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토론 등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비유적인 언어 표현 250여 개를 담았다.”

서정원 기자

-책을 쓰게된 동기는.

“비영어권 이민자들은 언어적 표현의 유려나 문화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원어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 자신이 비영어권으로 학창시절과 교수생활 내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내 터

한인 고교생 타일러 이군 민주 청년위 최연소 임원

한인 2세 타일러 이(한국명 이준섭·피치트리릿지교 12학년·사진)군이 민주당 청년위원회 조지아 지부(YDG)의 2024~2025년 최연소 임원으로 선

출됐다. YDG는 애틀랜타를 비롯해 귀넷, 캅카운티 등 14개 지역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민주당 청년 정치단체다.



올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이군은 임원 단종 유일한 아시아계 이자 최연소 임원으로 프로그램 부위원장을 맡는다. 장채원 기자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몬드 페닌슐라 상담관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경쟁력·효율성 강화... 현대차-GM 손잡았다

양사 '포괄적 협력' MOU 체결

내연기관·친환경차·원자재 등 공동 개발·생산 비용절감 모색 경쟁자와 협업 '프레너미' 확산



정 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가 제너럴모터스(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미국 완성차 업체와 MOU를 체결한 건 2000년 다임러크라이슬러 이후 처음이다.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메리 바라 GM 회장은 12일 뉴욕 제네시스하우스에서 MOU 협약식을 가졌다. 양사는 그간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협업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생산 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배터리 원자재와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통상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차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막대한 개발비가 든다. 완성차 업체 간 협업을 통해 플랫폼을 공유하면 그만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

와 자율주행 분야를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 도요타 아키오도 요타 그룹 회장이 방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요타와 BMW는 수소연료전지차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수소차 연구개발에 오래 투자해온 도요타가 BMW에 수소연료전지와 수소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BMW는 이르면 2028년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협력하겠다고 나선 배경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등 미래차 환경을 속단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유럽과 남미 시장 등에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을 위협하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과거의 적과 손잡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웬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예고한 데 이어 BMW도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췄다. GM과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신차 출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큰 격동기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우 기자

중국 부품 사용 배터리 세제 혜택 배제

하원, 7500불 세액공제서 제외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 미지수



연방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12일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역할을 두고 압박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를 산 사람은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내놨고, 이날 통

과된 것이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기업을 의미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일괄 배제토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전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진 않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이 법안은 11월 5일 대선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큰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해 중위소득 4% 상승

"팬데믹 후 첫 유의미한 증가" 아시아계·히스패닉 변화 미미

지난해 중산층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상승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은 10일 2023년 실질 중위

가구 소득이 2022년 7만7540 달러보다 4.0% 오른 8만610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위 가구 소득은 가구별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인구조사국은 "이는 2019년 이후 실

질 중위가구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간 증가율을 보인 첫 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2019년 중위 소득은 8만1210 달러였다.

작년 실질 중위가구 소득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은 5.4% 증가한 8만4630달러, 흑인은 2.8% 오른 5만6490달러였다. 히스패닉(6만5540달러)과 아시아계(11만2800달러)는 큰 변화가 없었다.

AP 통신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며 "40년 만의 가장 큰 물가 급등을 극복하고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력이 회복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도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다"며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따

르면 작년 모든 소득계층의 구매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은 0.4% 포인트 하락한 11.1%였지만, 아동 빈곤율은 13.7%로 1.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 2021년 5.2%로 급락한 아동빈곤율은 2022년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이 2022년에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주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학조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182; TX 2501870; PA 108823; FL ML25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2024 KOREAN FESTIVAL 코리아 페스티벌

Experience Korea

K-CULTURE | HERITAGE | MUSIC | COMMUNITY

September 22, 2024 (Sunday) | 11 AM – 9 PM

11 AM – 5:30 PM: Enjoy Fun Activities
(Free Admission)

5:30 PM – 9 PM: Evening Performances
(Tickets available on our website)

Wilde Lake High School &
Jim Rouse Theatre Performing Arts Center

5460 Trumpeter Rd.,
Columbia, MD 21044

후원해 주신 분들

M & T Bank | Lotte 롯데 | Triple C | Howard Community College | 축구협회 | 8luckyforests | Cafe June
Howard County Community Ambassador Program | Howard County Police Department | Hyeban 혜반
KOHO | Live Casino | RNDK | UNBS | 김경태 | 김남수 회계사 | 매스 뮤추얼 보험회사 | 모커리 척추병원
밥 캐츠 변호사 | 수미박 (뮤추얼) | 오향제 보험 | 옴니화재 스티브장 | 찰리성 변호사 | 코웨이 정수기회사
티엔 Bain Center | Larry Hogan Office | Lesoleil Flower | 김금란 | 이선주 | 정수기 회사 | H-Mart
EVERGREEN SETTLEMENT | 팽진수 | Eastern Liquor | JJ 골프 | Ledev (Lea's flower shop) | My Life
ROTC | 김미라 | 남정길 | 대장금 | 롯데 이불점 | 메릴랜드 남성골프회 | 메릴랜드 여성골프회 | 메릴랜드
체육회 | 메릴랜드 캐그로 | 메릴랜드 한국문화예술원 | 모드니에 건강식품 | 베세토 | 시민협회 | 신혜경
옥추리 | 유재성 | 이세명 이사장 | 이세희 | 전경숙 | 제임스 하 | 하워드 시니어센터 | 한인노인회 | 홍수잔
6.25 참전용사 손경준 | 강원도 특산물 | 김양순 | 델마바 한인회 | 메릴랜드 시니어센터 | 상록회 | 손경애
애난데일 시니어센터 | 오정택 FitzGerald Financial Group | 우리집 | 장상애 | 장애인체육협회 | 재향군인회
김인철 | 한미 여성재단 강명희 | 한미동맹 연합회 장인훈

CIA, 교황청까지 동원 이탈리아 친소 정당 집권 막았다

(1948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은 러시아·중국·이란의 대선개입 움직임을 연일 경고하면서도 정작 강력한 대응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엔 미국도 과거 다른 나라 선거에 많이 개입해 강력 대응 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월 29일 미 국가정보장실(ODNI)이 '러시아는 특정후보 지원을 모색 중이고 중국과 이란은 여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가시적인 대응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냉전 시기 미 중앙정보국(CIA)의 외국 선거 개입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된다.

CIA의 첫 해외 선거 개입은 1948년 3월 8일 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그해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친소 인민민주전선(PDF·이하 인민전선)이 친미 기독교민주당(DC)을 이긴다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 걱정된 것은 인민전선이 승리할 경우 예상되는 유럽 안보지형 시나리오였다. 인민전선이 승리할 경우 동유럽에 이어 이탈리아마저 소련 위성국이 되고, 소련은 이를 교두보로 내전중인 그리스까지 장악하면, 유럽문화의 원류격인 이탈리아·그리스가 모두 소련 수중에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날 NSC는 창설된 지 1년도 안 된 CIA에게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민당의 승리를 이끌도록 특명을 내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CIA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공산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반공세력 구축이 시급했다. CIA는 가톨릭 계에 도움을 요청해 어렵게 승낙을 얻어냈다. 여기에는 CIA의 로마 지점장이었던 제임스 앵글턴의 역할이 컸다.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수재인데다, 아버지 사업을 따라 밀라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인맥이 탄탄했다. 특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교황청과도 교류가 깊어 가톨릭의 지원을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2차 대전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마피아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지원세력을 확보한 CIA는 "공산당을 선택할 것인가? 신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의 기민당 지지를 이끌어냈다. 국민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점을 겨냥한 캠페인이 주효했다. 교회와 마피아 조직을 통해 공산주의 폐해를 알리는 편지, 책자 등도 제작 배포했다. 선거자금도 1000만 달러(현재가치 1억 달



1948년 이탈리아 총선 당시 사용된 기민당 선거 포스터 '주의: 인민민주전선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음'이라고 쓰여있다. [중앙포토]



살바도르 아옌데 전 칠레 대통령. 1973년 미 CIA가 지원한 군사 쿠데타로 실각했다. [중앙포토]

리)를 투입해 소련의 인민전선 자금 지원을 압도했다. CIA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민당은 총선에서 574석 중 305석을 차지하며 대승했다. 이 승리로 기민당은 1983년까지 집권하는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만들어 전후 이탈리아의 발전을 이끌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던 CIA는 전후 일본도 우르스롭게 보고 있었다. 인접한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세력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전후 일본의 정치적 혼란은 이런 걱정을 더 무겁게 했다.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작은 위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CIA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본의 정치지형을 강한 친미 구도로 만들기로 했다.

먼저 1959년 5월 총선을 필두로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을 적극 지원해 친미 세력을 더욱 강화했다. 주로 선거 정보 및 전략 제공, 자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등도 CIA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 진보세력을 친소 공산세력에서 분리시켜 친미 야당을 만드는 활동도 전개했다. 그 일환으로 온건 진보세력에게 신당 창당자금을 지원해 1960년 사회당 우파들이 민사당(民社党)을 창당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후 CIA는 민사당이 반공 야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64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미 기밀해제문서인 (미국의 대외관계집) (FRUS)을 통해 확인된다. FRUS 제29권 제2부는 "미

‘공산당이나 신이나’ 선택 캠페인 자금 등 쏟아 기민당 대승 이끌어

전후 일본 자민당 친미 인사 육성 칠레선 쿠데타 도와 공산세력 차단

내정간섭 논란, 미도덕성 큰 흠집 2005년 이라크는 난상토론 끝 취소

정부가 일본정체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CIA의 비밀 정보활동 4건을 승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70년대 칠레에 대한 공산세력 침투도 집요하게 차단했다. 1970년 칠레 대선시 CIA가 지원한 호르헤 알레산드리 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사회당과 공산당 연합후보인 살바도르 아옌데에게 석패하자, CIA는 포기하지 않고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군사쿠데타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친미 인사인 피노체트 육군 참모총장을 은밀히 접촉한 뒤 쿠데타 훈련, 무기 제공 등 내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아옌데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등 쿠데타 여건 조성에도 주력했다. 칠레에 대한 미 정부의 경제지원 제한 발표에 발맞춰 CIA는 노조 파업 유도과 아옌데 대통령의 부정부패 유언비어 확산 등 정치, 경제, 사회 혼란을 증폭시켰다. 1973년 들어 혼란이 심화되자 그해 9월 쿠데타 세력이 세상 밖으로 나와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렸다. 집권 3년 만에 무너진 아옌데 대통령은 끝까지 저항하다 AK-47 소총으로 자살했다. CIA의 선거 개입은 냉전 종식으로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거 개입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공작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2005년 이라크 제헌의회 선거가 그 시험무대였다.


이때도 선거 개입의 필요성은 선명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었다. 따라서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라크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

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완수할 친미 야당 알라위 총리가 2005년 선거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다와당 이브라힘 알파리에 질 것이라 정보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CIA는 알라위와 접촉해 선거 지원을 위한 내부준비에 착수했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CIA 등이 이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의외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외국 선거 개입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하고, 정치·외교·도덕적 리스크도 커 미국의 국익을 오히려 해친다는 것이 요지였다. CIA 내부에서도 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내의 비판은 CIA의 정보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결단으로 CIA의 이라크 선거 개입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그리고 그해 선거에서 이슬람 다와당이 승리했다.


이처럼 CIA는 냉전 시기 공산세력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 선거에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며, 성과도 있었다. 이는 대외문제를 외교·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곤란할 경우 정보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미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는 외교·군사에 이어 제3의 수단이라는 뜻에서 '제3옵션'(the third option)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성과 못지 않게 그늘도 남겼다. 무엇보다 선거 개입은 심각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비판을 불러와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에 상처를 남겼다. 냉전이 후 미국은 선거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대신 외국에 미 선거 개입 방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정치적, 윤리적 부담이 덜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거 개입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2020~2022년 사이 러시아의 외국 선거 개입이 무려 9개국 11개 선거에 이른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이를 말해 준다.



미 국가정보장실(ODNI)
9-11 테러 계기 정보기관 개혁 때 신설(2004년)된 미 최고정보기관으로, CI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 모두를 관리 감독한다. ODNI는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약칭이다.

미국의 대외관계집(FRUS)
1861년 이후 미국의 모든 대외 관계 문서를 모아 수시로 발간하는 국무부 자료집으로 CIA의 비밀해제된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FRUS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의 약칭이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라,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평 4, 환 3, 2 리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AVC, 새 핫워러팅크,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포, 페리온,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Realty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풀인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마음까지
 넉넉하게
 풍성한
 행복이 보내주세요



러브핸드 홈헬스 & 노인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정부는 응급실 총력전 국민은 “아프면 어쩌나”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 다섯 대가 들어섰다. 응급실 앞 주차구역이 119와 사설 구급차로 꽉 찼다. 한 구급차에서 다급히 내린 60대 여성 A씨가 응급실 벨을 눌렀다. 조금 뒤 '수용 가능' 신호가 오자 들것에 실린 80대 여성 환자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옮겨졌다. A씨는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급히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 응급실(지역응급의료센터), 성모(58)씨는 “동료 직원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보호자로 왔는데, 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큰 병원도 이런데 지방 병원은 어떨까 싶다”며 고개를 저었다. 응급실엔 경증으로 보이는 환자도 여럿 보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40대 여성 B씨는 “복통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 한참 기다렸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실 비상사태’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과 사직 등이 겹치면서 응급실 근무자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이 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겐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긴 연휴 기간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문을 연 병원으로 한꺼번에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그런 가운데 의료공백을 해소할 계기



13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대구시 중구 광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

로 주목받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이날 의료계 8개 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휴를 앞둔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관 홈페이지에도 여러 병원이 ‘전문의 한 명 진료, 119 이송 전 수용 여부 확인’, ‘일부 과목 진료 불가’ 등의 안내 메시지를 올려놓고 있었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인력 상황상 추석 연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9~10일 전국 53개 수련병원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근무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535명으로

41.5%나 줄었다. 전의교협은 조사 참여 병원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24시간 운영이 어려워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흔들리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7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약 3600개)의 두 배 이상이다. 150여 개 분만병원도 운영을 이어간다.

정부는 연휴 전후로 건강보험 수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정상시의 3.5배로 올리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인상하는 식이다.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센터엔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의사·진료지원(PA)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이긴 아플 경우 무조건 큰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중증도’를 판단해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증 응급 환자는 권역·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출몰 현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인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들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기존보다 9만원가량 비싼 평균 2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명절 연휴엔 경증 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방문이 잦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는 평상시 평일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환자 중 상당수는 손상·염좌·감기 같은 경증 질환자였다. 각 지자체도 분주해졌다. 지자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 관리상황반’이 운영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를 챙기게 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6~18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는 하루 최대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많은 의료진이 묵묵히 환자를 챙기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추석 연휴에도 진료를 계속한다. 예전 명절에도 문을 열었지만 이번엔 의료공백 상황을 고려해 진료실 운영을 더 늘리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밤·휴일·명절 없이 일하다 보니 체력적 한계가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늘 그랬듯 이번 명절에도 응급실을 지킬 거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못 살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의교협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이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안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2025년도 증원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13일 오후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에 한때 장애 발생 시 민 불편이 가중됐다. 서울시는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금일 오후 8시30분부터 서울 지역 119 신고 접수에 장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 바랍니다”고 밝혔다. 장애 문제는 약 45분가량 이어지다 오후 9시15분께 복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119 신고가 가능하다. 시스템 상 오류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중훈·남수현 기자

연휴에 병·의원, 약국 검색은 129... 소아 응급상황 땀 119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800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정부는 “연휴 기간 아프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몸이 아플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이 나거나 약간 찢어지는 상처가 나는 등 경증·비응급 상황이라면 무조건 큰 병원이나 응급실로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병·의원이 이런 환자를 진료한 뒤 중증이라고 판단할 경우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

할 거라고 설명했다.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 등을 확인하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과 약국 등을 지도로 보여준다. 주요 포털 지도에서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매일 문을 연 의료기관을 점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명절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크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동 환자가 몰리는 소아응급실은 평소보다 혼잡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안내문을 통해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는 아동은 즉시 119에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90일 미만의 영아가 열이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119 연락 후 중증으로 판별된 응급환자만 소아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야간 진료 병원을 이용하거나 오전 중 일반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날 경우에 대비해 해열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벽에 열이 나오면 일단 약을 복용한 뒤 아침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미만 영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만 써야 한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상을 입은 자리는 먼저 흐르는 수돗물로 식혀야 한다. 송편 등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경우엔 환자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의 뒤에 서서 왼쪽 주먹을 쥐고 엄지 부분을 환자의 배꼽과 갈비뼈 사이의 중앙에 댄 뒤 다른 손으로 주먹 왼 손을 감싼다. 이 상태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의 복

추석 연휴 아들 때 행동요령

자료: 보건복지부

- ▶ 6개월 미만 영아 열날 때
- ▶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복용
- ▶ 음식 먹다 기도 막힐 때
- ▶ 기침 유도하고 하임리히법 실시
- ▶ 의식 잃을 때
- ▶ 119 신고 후 꼭지끼고 심폐소생술
- ▶ 벨에 쓰였을 때
- ▶ 핀셋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내듯 침 제거



부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다. 주변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의 가슴 중앙에 딱지 낀 두 손으로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면 된다.

문상혁 기자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샷찍어보세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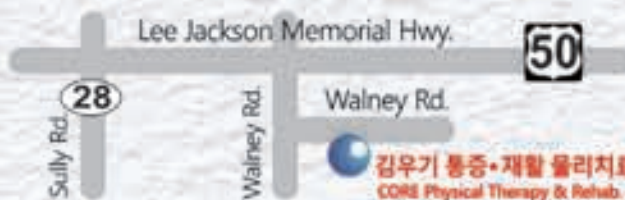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WIDE SHOT



가파도 삼형제의 별초 추석을 앞두고 산소 별초를 하는 삼형제의 모습 너머로 바다 건너 제주 산방산이 어른거린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 가파도 풍경이다. "서울에서 첫 비행기로 제주에 내려와 서귀포 운전항에서 첫 배를 타고 입도했다"는 막내 강승정씨는 '식계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놓이 안다(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몰라도, 별초하지 않은 것은 남이 안다)'는 제주 속담을 알려주며 활짝 웃었다. 누렇게 변한 너른 들판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산소 주변을 '산담'이 둘러싸고 있다. "산담은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서 돌을 하나씩 날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중조할아버지께서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다."고 제주시에 사는 둘째 강승동씨가 뿌듯해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담은 방목하는 가족으로부터 산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글=최영재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45) 세컨드 하우스

글·그림 이원복

Comic strip titled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45) 세컨드 하우스' by Lee Won-bok. The comic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left section, '러시아의 다차촌', depic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achas in Russia, from the 1700s to the present, showing the transition from simple wooden huts to modern luxury homes. The right section, '1672-1725', focuses on the early history of dachas, mentioning the influence of the Swedish and German empires and the role of the aristocracy. The comic uses humor and historical references to explain the concept of a 'second house' in a foreign country.

Advertisement for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The ad features the clinic's name in English and Korean, a large red Korean title '서울이극한방병원', and contact information: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a list of conditions treated, such as allergies, skin diseases, and joint pain. A map shows the clinic's location near White Oak and Exit 28A. A TV Travel Channel logo is also pres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ikiri Real Estate' (비키리 부동산). The ad is split into two main parts. The left part, '9월 HOT 리스팅' (September Hot Listing),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a house for \$69,000, a townhouse for \$3500/month, and a lot for \$3,500. The right part features a woman's portrait and contact information: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and a list of services. The ad also includes a confidentiality notice and a logo for 'Amplars Real Estate' (앰플러스 부동산).

우리말 바꾸기

‘~에’ ‘~에게’ 구분 법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지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으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지’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는’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 비슷한 낱말로 ‘~한테’와 ‘~더러’가 있다. 둘 다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문화산책

한가위 보름달, 나그네 젖은 눈



장소현
 시인·극작가

9월17일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동백은 보름달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그리운 고향 찾아가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푸짐하고 맛있는 잔치 음식과 송편 배불리 먹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윗날만 같아라”는 말이 어울리는 명절.
 한국에서는 해마다 추석이면 대단한 귀향 전쟁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뉴스를 보니 올해는 의료분쟁 때문에 그렇게 흥겹지 못할 것 같다. 이번 추석에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는 다짐을 하기 바쁘다는 소식이다.
 우리 타향살이 나그네에게는 추석 같은 명절이 반갑기보다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 같기만 하다. 한국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들은 전화라도 안부를 여쭙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젖은 눈으로 멍하니 보름달 올려다보며 부모님 생각에 잠긴다. 디아스포라의 서글픔이다.
 나처럼 삼팔파라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렇다 할 고향도 없는 무향민(無鄕民)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저, 떠나온 나라의 친구들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달을 보고 있었구나, 그런 막연한 그리움... 나그네의 젖은 눈.
 “나는 오나가나 나그네다. 이 길손의 눈은 늘 젖어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 먼 데 있는 친구들 혹은 나그네들의 손을 잡고 서로 껴안고, 글썽한 눈

끼리 눈으로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그리움의 달무리에 정이 번지면, 시와 시인을 또 자극하는 시간의 바다가 출렁거린다.” -고원 시집 ‘나그네 젖은 눈’ 머리글의 한 구절
 시인은 ‘달 돌이 떠서..’라고 노래한다. 고향에도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도 같은 달이 뜬다는 표현, 고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달이 어디 둘 뿐이라? 하나의 달이 천(千)개의 강을 고루 비춘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이다. 온 세상을 고루 비춘다. 그러니까, 지구 구석구석에 사는 나그네 모두가 같은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요새는 떠돌이 나그네, 이방인, 경계인, 유랑민 같은 말 대신에 ‘디아스포라’라는 멋쟁이 서양말이 널리 쓰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 정신’ ‘디아스포라 문화’ 같은 식으로...
 이 말은 본디 제 나라에서 핍박받고 쫓겨난 사람됨, 난민을 뜻하는 정치성 강한 용어였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온 곳은 있는데 돌아갈 곳이 마땅

치 않은 이주민을 뜻하는 말로 폭넓게 쓰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디아스포라인 셈인데, 어쩐지 어색하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는 필요는 충분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에서는 디아스포라가 창작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유대인 예술가들의 막강한 업적과 영향력이 대표적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변방의 힘’ 같은 것이다.
 디아스포라라는 낱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 ‘~너머’를 뜻하는 dia와 ‘씨를 뿌리다’는 뜻의 spero의 합성어라고 한다. 즉, 뿌리 뽑힌 떠돌이 나그네 삶의 고달픔과 슬픔을 뜻하는 이산(離散)과 새로운 세계의 개척이라는 적극적인 뜻의 파종(播種)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씨를 뿌린다’는 말이 매우 매력적이다. 새로운 땅에 뿌리내린 우리 이민자들의 존재 의미를 말해준다. 고향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 간절한 그리움을 창조적 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한가위 보름달을 우러르며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가 선명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린 씨앗인 우리 2세들을 잘 가꾸고 보살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러기 위해서 정신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이끌어 주십사...

이아침에

떠나는 시간 붙잡고 울지 말기

시간은 고무줄이다. 늘어나고 줄어든다. 하루를 일 년처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년을 하는 일 없이 지루하게 허송세월로 보내기도 한다.
 시계추는 다른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추가 좌우로 흔들림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태엽이 풀리며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아침부터 밀려오는 하루의 시작(중략)/
 평범하게 씻고 평범한 식사를 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침이 지나가면(중략)/
 똑딱거리는 시계바늘에 맞춰/ 시계추마냥 왔다 갔다 하는 하루들/ 하루가 모여 한 달, 일년을 넘어가면/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 길까/ -유니의 ‘시계추’ 중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매달려 인생의 시계는 돈다. 인생의 시계는 수동이다. 멈추지 않게 하려면 태엽을 감든지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한다.
 매일 새벽 4시, 캄캄한 어둠을 뚫고 하루를 맞는다. 눈여겨 보는 이 없어도 밤새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새벽별과 작별하고, 제일 먼저 가슴

스치는 바람과 악수한다. 어둠에 묻힌 잔디는 작은 진주 같은 이슬을 품고 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갈하고도 고요한 하루의 시작에 가슴 떨린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웬 수다냐고? ‘나이 들면 새벽에 깬다’며 아들은 나의 새벽 세레머니를 평가절하한다. ‘나쁜 놈, 저도 늘어봐라’ 하려다가 늦잠 꾸러기로 어머니 애간장 태우고 지각 밥 먹듯 하며 벌서던 생각이 나서 허죽이 웃는다.
 절실하면 이루어진다. 성격은 바꾸기 힘들지만 버릇은 길들이기에 달렸다. 화랑과 창작예술센터 운영하고 아이 셋 낳아 보며 해 뜨고 질 때까지 내 시간은 일 분도 허락되지 않았다. 애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이 유일한 피신처로 탈출구였다. 그때부터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내 ‘새벽 동화’가 시작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고통과 권태를 견디고 영롱한 새벽별 보고 폭풍이 지나간 하늘에 뜬 무지개를 만나는 사람은 슬퍼도 울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본다. 자기 생각

대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길고 짧음을 판단한다. 마음은 변덕쟁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힘든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흐른다.
 한국행 비행시간은 왜 그리 느리게 가는지. 아이 폰 꺼내 보고 또 꺼내 봐도 병아리 눈물만큼 움직인다. 한국에 있는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간다. 옛 동무나 지인 만나 동대문에서 갈치술밥, 뽕비우동, 꼬마김밥. 옛날 짜장면, 추억의 음식 즐기며 먹방투어 하다 보면 날벼락처럼 시간이 달아난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날았다.’ 남 오시는 밤 꺼내고 싶은 황진이 사랑은 에로틱하며 서정적이다.
 사랑할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흘러간다.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면 지금 시작하면 된다. 시작의 종착역은 끝이 아니다. 쓰러지고 무너져도 떠나는 시간 붙잡고 울지 않기를.

이기희 Q7 Editions 대표·작가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JUNG KWAN 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4-2023 data, © 2024 edition

JUNG KWAN JANG

추석을 맞이해요! —
**정관장과 함께
온가족과 함께
건강한 추석 맞이!**

행사 기간 : 8/30 - 9/22/2024



EVENT 1
천녹 제품군 & 황진단

1개 구매 시 10% 할인
2개 구매 시 20% 할인



EVENT 2
홍삼정 240g

2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120g)
3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240g)



EVENT 3
에브리타임 /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30포 세트)

2개 구매 시 10포 무료 증정
3개 구매 시 FULL 세트 (30포) 무료 증정



정관장 구매고객에게
테슬라를 쏜다!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경품이 팡팡!!



TESLA MODEL3 RWD



CERAGEM

마사지체어 /
베드 (M2/M2/V6)
\$3,299 ~
\$6,600
상당



프리미엄 정관장 제품
(홍삼달임액 지삼/천녹톤/천녹정)



\$362 상당 \$320 상당 \$564 상당



아마존 \$50
기프트 카드



고객정보 업데이트하고 이벤트 신청만해도 응모권 증정!
많이 구매할수록 당첨 확률 UP!

응모 방법	QR Code를 통해 고객정보 입력 후 이벤트 동의			
응모 기간	1차	2차	3차	대상
응모 기간	8월 ~ 9월	10월 ~ 11월	12월 ~ 1월	1~3차 신청시 자동응모
당첨자	1등(1명), 2등(10명) 3등(50명)	1등(1명), 2등(10명) 3등(50명)	1등(1명), 2등(10명) 3등(50명)	1명
당첨자 발표	2024년 10월	2024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2월

*경품사진은 이미지였으므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경품의 세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매난데일 지점

703-642-1304

7326 Little River Turnpike #D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703-815-3434

13822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410-480-2304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Suite 109
Ellicott City, MD 21042

본 행사는 정관장 멤버스 가입자 대상 한정 수량 진행되어 제품 소진시 조기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품 정관장 제품은 미주 정관장 가맹점 및 지정 판매처에서만 판매하며,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kgcs.com을 방문 혹은 contact@kgc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동한
이민/비자 변호사

Q 불투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조치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바이든 정부에서 밀입국했다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

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24년 8월 19일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텍사스 주와 15개

의 다른 주에서 텍사스 지방법원에 이 행정조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정조치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방 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이민국에서 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수 없도록 행정적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0월 중순까지 행정조치 프로그램과 관련 추가적인 법원 서류를 접수할 의도와, 이어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필요시 통합된 벤치 재판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유예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유예 기간 동안 행정조치 프로그램 신청서를 승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는 여전히 접수하고 있고 법원 유예 명령 이전에 승인된 케이스는 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텍사스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관계자들은 지방법원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항소법원 또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Q 뛰어난 성적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문= 고교생들이 효과적인 대학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답=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만약 명문대 진학이 최대 목표라면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학업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작은 스텝을 하나씩 밟아야 하며, 내가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을 확대해야 한다. 아카데믹 퍼포먼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학 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적이다.

입시전략 수립은 빠를수록 좋다.

9학년과 10학년 때 대학 리서치를 시작하고, 특정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성적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타겟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대학이 드림스쿨인 경우 AP, IB, 아너(honor) 등 높은 수준의 클래스를 최대한 많이 택하고 가능하면 대부분 수업에서 A를 받도록 노력한다. 대학들은 지원자의 학업성적을 보면서 학생이 대학이 진학한 후에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판단한다.

대학들은 또한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관

심 분야에서 ‘포커스’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대학들은 왜 학생의 ‘원심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일까?

해마다 캠퍼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바이올린 연주가 특기인 학생, 수영으로 출신 주의 톱10에 든 학생,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놀랄 만한 성취를 이룬 학생 등 열정과 뛰어난 분야가 각기 다른 학생들을 끌어모아 ‘발방미인형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한두 가지 분야를 끈기 있게 파고들어 성과를 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STEM 분야를 전

공할 계획이며, 로보틱스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관련 클럽이나, 커뮤니티 내 로보틱스 클럽에 멤버로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고 기회가 되면 로컬, 리저널, 스테이트, 내셔널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뤄본다.

탑 대학들은 도전정신이 강한 학생들을 선호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도전할 때 흥분을 느끼는 학생을 높이 평가한다. 심리학을 좋아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학 클래스를 수강하라. 만약 학교에 AP 심리학이 없으면 독학으로 매년 5월 실시하는 AP 심리학테스트에 도전해 보자.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Q 레몬법 주의보: 리콜 차량과 숨겨진 오일 소비 문제

▶문=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 최근, 비정상적인 속도로 오일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General Motors, Hyundai, Kia, Audi, Volkswagen을 포함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일 소비 문제로 인해 리콜되었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정지, 내부 엔진 손상 또는 조기 엔진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딜러십에 가서 오일 소비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레몬법 청구를 추진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2023년에 가장 많은 리콜이 이루어진 차량은 무엇입니까?

▶답= Honda는 63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Ford는 61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모든 Ford 차량의 16%가 리콜되었습니다. 리콜된 대부분의 차량은 지속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또는 난방 시스템, 백업 카메라, 브레이크, 도어, 전기 시스템, 엔진, 스티어링, 서스펜션, 변속기, 물 누출, 창문.

▶문= 정지 및 주행 교통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답= 로스앤젤레스의 정지-가동 교통은 짜증 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차량에 상당한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손상이 차량의 여러 부분으로 퍼질 수 있으며,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차량을 정비소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정지-가동 교통에서 차량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 체증 속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곧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엔진과 관

련된 결함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끊임없는 충격은 차량 서스펜션 시스템의 결함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쇼크, 스트럿, 스프링 및 컨트롤 암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4) 끊임없는 가속 및 감속으로 인해 엔진이 더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배출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공기가 적으면 몇 마일을 달린 후 결함으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CUCKOO



한가위처럼 풍성한 쿠쿠 BIG SALE

기간 8.29.2024 - 9.26.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9월 내 설치

일시불구매시
최대 30% OFF

2건 이상시
**\$150 상당
공기청정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렌탈 제품 특별 혜택

**전 제품 다운페이 \$100 OFF &
특별 사은품 증정**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1건만 해도 사은품 증정
2건 이상시 더 특별한 사은품이!**



*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안마의자 일시불/렌탈 시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3D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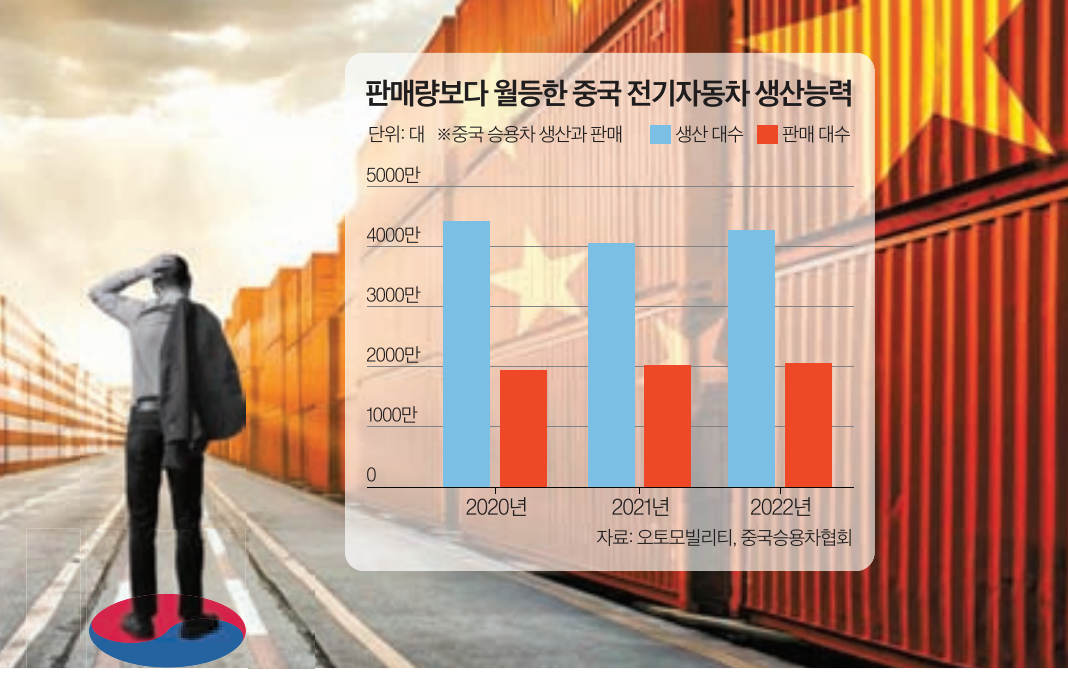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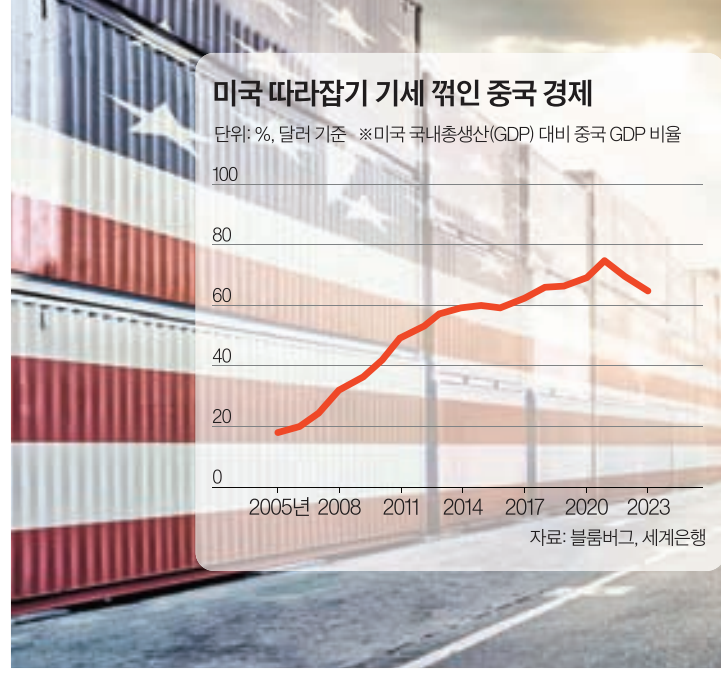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September 16,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전기차 등 새로운 중국 쇼크 넘어설 통상 전략 세워야

미 대선 이후 한국 통상의 과제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당선되든
대 중국 정책 초강경 기조 전망

미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올해 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는 경우 예견되는 그의 통상 정책을 공급해하는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강연장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기존의 규범과 합의를 파괴하고 무시한 그의 막무가내식 일방주의 통상 정책 광풍의 영향권에 끌려들어 간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관세 신봉자(Tariff Man)'라고 명명했던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귀환한다면 다시 한번 세상을 혼돈과 파괴로 몰아넣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 10%를 예고하고 있다. 클럽에 들어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듯,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관세라는 통행료를 내

라는 주장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 체제였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 오랜 세월 협상을 거쳐 지속적으로 내려간 미국의 수입 관세, 그 관세를 모든 회원국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일방주의다.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살리려는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지만 보편적 수입 관세는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 인상, 서민의 가계부담 가중을 초래할 것이라 지금도 상식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미 초당적 합의 '중국은 체제 경쟁자'
우여곡절 끝에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재선 시도를 포기하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는 초박빙의 양상을 보인다. 해리스의 대외 정책은 현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 선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연

합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해리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을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 정책에서 증명됐다. 해리스가 대권을 쥐게 되면 기후변화가 통상 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은 '노동'과 더불어 민주당의 가치를 대표하는 의제이며, 해리스의 정치 기반인 캘리포니아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화하려는 정책 구상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 그의 구상은 해리스에 의해 구체화하고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정책에 대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전혀 상반된 입장은 저성장 추세가 만성화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과 정책 당국에 리스크와 불확실

성 그 자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문제에 이르면 그 차이는 좁혀진다.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미국 국내 정치에서 미국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체제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것에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 미국인의 반중 정서는 바위처럼 단단하다.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의 거울임을 생각하면,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 중국 문제 만큼은 초강경 기조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누리는 비차별적 대우를 중국에겐 박탈할 작정이다. 자신의 재임 기간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상해 핵심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해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할 생각임을 공개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 2면 '통상'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절제 소비 '노바이' 트렌드, 고물가 시대 일시적 현상 아니다

(No-Buy)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절제 소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2년 전 물가 상승이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기간, 특정 영역에서 0원 지출에 도전하는 무(無)지출 챌린지가 등장했다. SNS에서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하우를 게시하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젊은 층이 필수 항목으로 여기는 통신비도 절약 대상이 되어 최저 요금제나 알뜰폰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4분기 20대, 30대의 통신비는 2019년 대비 각각 29.2%, 32.8% 감소했다.

레딧 노바이 챌린지에 5만 명 참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생필품과 교통비, 최소한의 교제비 등을 제외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바이(No-Buy) 챌린지를 선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젊은이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노바이 챌린지에는 5만 명이 참가했고, 틱톡에서도 주식 투자 등 돈 버는 정보와 함께 현금으로만 생활하기 같은 절약 관련 정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새 옷은 1년에 다섯 벌 구매가 적정하다는 '5의 원칙(Rule of 5)'을 패션 전문지 보그 등 여러 매체가 보도하자 적은 아이템으로 다양한 패션을 연출하는 노하우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절제 소비의 역사는 1990년대 촉발된 반소비(anti-consumerism)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혹적인 마케팅이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기업의 상업성 및 환경과 괴를 고발하는 반사회 단체의 활동이 거세졌다. 비영리기관 애드버스터즈(Adbusters)는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아무것도 사



미국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시위. 작은 사진은 녹색연합의 Buy Nothing Day 캠페인.

[사진 인디베아·녹색연합]

지 않는 날(Buy Nothing Day)'로 지정해 대형 쇼핑몰 주변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 임바르 캄프라드 이케아 회장 등 수퍼 리치의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화제를 낳으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극단적인 절약 소비가 두드러졌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해 경제 침체와 대지진, 테러를 겪으며 성장한 젊은 층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소비 행태를 보였다. 소비를 가치 없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죄악시키는 혐(嫌)소비 현상까지 등장했다. 당시 일본의 10대와 20대 소비자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화장품에 1000엔 이상 쓰거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와 "쇼핑과 외식, 여행을 모두 끊고 절약만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경영자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는 '가성비'로 통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의미의 '코스파

(코스파·cost performance)'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

기업 동참해 재미 요소를 더하기도

지금의 노바이 현상은 과거 반소비·혐소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반소비 운동을 환경오염과 불평등 문제를 비판하는 사회단체가 주도했다면, 노바이 챌린지는 소비자 개인이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개별적인 행동이지만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강력한 소통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소비 운동이 간헐적 이벤트였다면 지금의 절제 소비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이뤄진다. 또 마케팅과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소비, 혐소비와 달리 무지출, 노바이 챌린지는 기업이 동참해 재미 요소를 더하기도 한다. 유통업체는 초저가 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금융업체는 챌린지를 완수한 고객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며 절약 생활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을 오가듯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로는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은 검소와 사치가 혼재된 모습이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단지 젊은 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에 능숙해진 장노년층도 초저가 차이나 커머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실속을 챙긴다. 2024년 상반기 테무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명하고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통념도 효력을 잃고 있다.

저가품 소비자는 저소득층이라는 공식도 의미가 축소됐다. 최근 월마트가 론칭한 자체 브랜드 베타굿즈(bettermgoods)는 대부분 제품이 5달러 이하 가격대이면서도 요리의 즐거움을 강조하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고객의 20%가 고소득층일 정도로 전 계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계기로 월마트는 저가 할인업체에

서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국민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 저렴한 가격을 넘어 간소하지만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케아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제안하고 사과 씨 부분, 당근 꼬트머리 등을 활용한 요리책(ScrapsBook)을 출간해 낭비를 최소화하는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굳혔다.

이름값, 명분이 중요해진 고가 시장

고가 시장에서는 이름값, 명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보도는 전 세계적인 공분을 불렀다. 숙련된 장인이 엄선한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는 특별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공들여 쌓은 명성도 물거품이 된다. 까다로운 구매 조건만 내세우고 사회공헌에 인색한 기업은 품위 없는 갑질 브랜드로 낙인찍힌다. 명품업체가 과소비를 부추겨 젊은 층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사람이 많다. 절제 소비는 개인의 지출 관리를 넘어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는 반소비 가치와 맞물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 소비는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무지출, 노바이 트렌드를 고물가 시대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지속 가능 소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순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1면 '통상'에서 이어집니다

2016년에 그랬듯 2024년에도 트럼프는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65% 수준 줄어든 중국 GDP

2024년에 미국 대선의 승자가 마중할 중국은 2016년의 중국과는 다르다. 2016년만 하더라도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는 대세론이 세상을 활보하던 시절이다. 그 무렵엔 중국의 경제력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를 두고 국제기구와 연구 기관, 컨설팅 회사, 금융회사 등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예

측을 내놓던 것이 대유행이었다. 2024년과 2025년, 2030년... 숫자는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중국의 주요 1개국(G1) 등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였다. 그들의 예측은 실현되고 있을까. 중국은 8년 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까지 따라갔고, 2021년에는 75.2%까지 추격했다. 그것이 정점이었다. 2022년부터 중국은 급속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2023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65% 수준으로 오히려 미끄러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국의 경제력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지 는 지난 수년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필자의 강연 초반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골 질문이기도 했다. 트럼프 등장 이전인 2015년만 해도 청중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의 G1 등극 시기를 분주하게 외쳐댔다. 그런데 트럼프의 등장 이후 미국이 기존의 포용 정책에서 공세적 저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청중이 늘어났다. 트럼프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침묵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그들의 추론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경제는 정해진 경기 규칙에서 진행되는

게임인데, 지금까지 중국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가능케 한 것은 미국의 중국 포용 정책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변화할 것이라는 외교 전략적 구상으로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에게 자신의 시장과 자본, 기술, 교육을 개방했다. 그런 미국이 변심해서 경기 규칙을 바꾼 만큼 과거와 같은 중국의 성장세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청중의 상식적인 생각이었다. 학계에서 중국 피크론이 등장하기 전이다.

중국 전기차 공습에 망연자실한 EU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인구 역시 같은 궤적에 진

입했다는 관찰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서구는 새로운 중국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구 시장을 용단폭격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와 제조업 규모를 가졌음에도 자동차 산업의 감자가 되지 못했던 중국이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세계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차의 고속 질주 배경에는 2015년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그들의 산업 정책인 '중국 제조 2025'가 있다. 파격적인 보조금과 시장 보호에 힘입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초기 강자였던 한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최상위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상가 임대수입 <small>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small>	상가 임대수입 <small>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small>
상가 임대수입 <small>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small>	상가 임대수입 <small>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small>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

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통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백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ww.dwellwashington.com

동시 투자·사용 자산... 지수형 연금 관리 유리

현명한 은퇴자산 관리

지난 8월 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중견 은행들의 파산과 금융위기설로 시장이 요동쳤던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지금으로선 일단 '패닉'이 더는 확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금융시장의 현재

최근의 시장 움직임은 금융시장의 현 상태에 대해 중요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8월 초 시장의 변동성은 경기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흔들렸다. 값싼 통화를 빌려 이자가 높은 통화 기반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 불과 수일 사이 수년간 약세로 물려있던 엔화가 달러 대비 13%나 반등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높게 나온 실업률이 추가 변동성을 촉발했다. 불황 우려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월 중 전격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것도 달러 약세에 한몫했다.

하지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시장이 고용 지표에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라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황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초강세를 보여온 고용시장이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수형 연금은 채권 대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각국 통화 당국이 시장의 위기 가능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패닉이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은행들의 위기 상황에서도 연준과 정부는 이들 부실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줬다.

일본 역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자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적극 천명하고 나섰다. 시장 불안감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결국 유사하다. 방만한 크레딧에 기인한 문제를 더 방만한 크레딧으로 계속 해결해준다.

실은 일찍부터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해결책이 언젠가는 터질 화약고로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

고해온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글로벌 통화 당국과 시장은 양적 완화 마인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 지상주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갈수록 연관성이 높아지고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빚을 빚으로 탐감해주며 결국 잘못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 셈이 됐다. 전례없이 확장된 크레딧으로 각종 자산의 '버블'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게 됐다.

인플레이션도 최근 다시 하락 안정세를 보이지만 어떤 길을 갈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환경에서는 '리스크'를 멀리하는 것이 확실히 손해일 수도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리스크 자산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전반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은퇴 투자자들은 원치 않아도 리스크 자산 투자를 완전히 기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듯하다. 현 상황은 그래서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리스크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은퇴자산 관리

은퇴자산 투자와 관리는 특별하다. 은퇴 기간에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은퇴자산의 일차 기능은 은퇴 기간에 소득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급한대로 정책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리스크를 부추기는 환경에서 리스크 자산을 무작정 멀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리스크 자산 투자는 손실 위험이 늘 함께한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은퇴 자산 관리를 어렵게 한다. 시장이 떨어질 때 여기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그만큼 회복에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평생 보장 연금' 특약조항이 있는 지수형 연금만큼 단순명료한 해결책이 없다. 현시기 지수형 연금이 은퇴자산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자다. 인플레이션 역제를 위해 올라온 금리가 지수형 연금을 더 좋게 만들었다.

이자수익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평생 보장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이자

율 등이 훨씬 좋아졌다. 다시 금리 인하가 고려되는만큼 보다 유리한 이자 환경일 때 이를 활용한다면 더 이익일 것이다.

둘째는 리스크 관리다. 지수형 연금에 배정한 자금은 잘 알려진 대로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채권 대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은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셋째는 투자 지속성이다.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평생 보장 연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금만 지수형 연금에 배치하고 나머지 은퇴자금은 계속 리스크 자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적어도 필요한 소득원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은퇴자금 중 30만 달러는 지수형 연금에 배치, 보장 소득 연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70만 달러는 원하는 리스크 레벨에 맞춰 투자를 지속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은퇴소득을 만들어 내고, 최종적인 자산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100만 달러 전부를 주식 등 리스크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 인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인출한다면 그만큼 자금 회복이 더디거나 조기 소진될 리스크도 높아지게 된다. 지수형 연금을 활용하면 하락장이라고 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조기 소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권 에 이름을 올렸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판매량의 거의 2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의 판매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서구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전기차로의 조기 전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공급, 환경 문제 해결의 3마리 토끼를 잡아 침체에 빠진 유럽연합(EU)을 혁신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던 EU는 충격으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당장은 중국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기업인 폴크스바겐이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

으로 몰린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의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와 봉쇄에도, 중국은 중국 방식의 기술 굴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가장 싼 비용으로 최종 조립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세계가 필요했고 세계 역시 중국이 필요했다면, 2024년의 중국은 신기술의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2016년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서로 이기는 윈윈(win-win)이었다면, 2024년 중국과 세계는 이기거나 지는(win or lose) 관계로 바뀌었다.

다자무역 체제 붕괴...대안 모색해야

대선을 앞둔 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는가. 첫째,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다자무역 체제는 붕괴했다. 단기간에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체제의 설계자인 미국이 스스로 체제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가진지 8년이 됐고, 2024년이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자 체제 만세를 외치며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개방된 세계 경제를 지향하던 미국은 점점 고립화하고 있다. 점점 미국으로의 수출보다 미국으로의 투자가 미국 정책 당국자가 원하는 무역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가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우려는 비현실적인 기우일까. 이젠 중국에서 미국으로 방향을 돌린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화학 등 한

국 제조업의 핵심 분야에서 대미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 얼마나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내 산업계에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은 더는 한국과 보완적·분업적 산업 생태계에서 협력하는 무역상대국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고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비대칭적 기술력·군사력은 위협적이다. 경제 안보의 시대에 그 위협은 더 두렵게 다가온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넘어선 한국 통상의 대중국 전략은 무엇인가.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여름이 끝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401(k) 재직 중 인출

401(k)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IRA로 이전
로스 IRA로 전환하면 세금 부과될 수 있어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적절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옵션이 바로 재직 중 인출(In-Service Withdrawal)이다.

재직 중 인출이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401(k)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은퇴 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한정된 투자 옵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기

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무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는 회사의 401(k) 플랜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Adoption Agreement'를 살펴봐야 한다. Adoption Agreement란 회사가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선택한 구체적인 규칙과 옵션을 명시한 문서다. 이 문서에는 재직 중 인출의 허용 여부, 허용 연령, 허용되는 자금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Adoption Agreemen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401(k) 플랜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재직 중 인출에 관한 정보를 직접 알려줄 수 있다. 또는 401(k) 플랜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가 이러한 중요 문서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해 두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더 이른 나이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 기여금, 고용주 매칭 등 어떤 종류의 기여금이 인출이 허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IRA로 자금을 이전하면 투자 옵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401(k)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지를 벗어나, 개별 주식, 채권, ETF,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특정 니즈와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더욱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더불어 IRA는 401(k)에 비해 더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 IRA에서는 고성장 상품, 원금보장 상품 등 다양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투자자의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재직 중 인출을 고려할 때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01(k)에서 전통적 IRA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Roth) IRA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IRA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도 기존 401(k)와 비교해 봐야 한다. 때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401(k) 플랜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401(k) 관리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재직 중 인출은 그 설계도를 더욱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숨겨진 옵션을 한번 짚어보시길 권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잡한 재무 결정이 동반되기에 401(k)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으로 당신의 401(k)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기를 권장한다.

경제 상식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금리 정책

금리 내리면 국채·모기지·환율 동반 하락
빅컷 시 변동 폭 확대, 롤러코스터 장세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례회의가 이번 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루어진다. 증권가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빅컷(0.50%포인트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다방면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도 내릴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도 내려앉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최근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채 이자율도 동반 하락하게 된다. 물론 채권 이자율, 모기지 금리, 환율 등은 금리 변동 전망에 따라 실제로 금리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단순하지만 명료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현실화되기 전에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금리에 묶여 움직이는 금융상품들을 변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경

제 지표에 매달리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눈치를 보는 결정 전이 아니다. 이는 결정 후라고 보는 게 맞다.

보통 증권가에서는 FOMC 결정 직후의 증시 움직임을 먼저 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18일 금리정책 발표가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정도라면 발표 직후의 증시 반응은 상승·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초반 반응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유력한 탓에 0.50%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지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빅컷을 예측하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보다는 일종의 보험용 금리 인하로 경기침체에 미리 대응하는 전략

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류다. 만약 0.50%포인트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0.50%포인트나 내리나?'라는 불안 심리가 반영돼 이내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0.25%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지면 올해 11월과 12월, 총 두 번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 냉각 이전 선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비난도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9월 회의에서 0.50%포인트를 내리고 11월에는 금리 동결을,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12월 추가인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하 폭보다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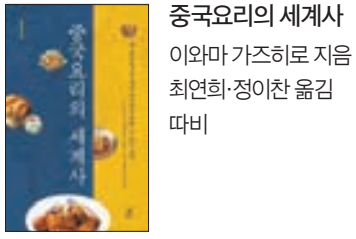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불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근현대사 우려낸 맛, 세계화·현지화 추적기



중국요리의 세계사
이와마 가즈히로 지음
최연희·정아찬 옮김
따비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저우언라이 총리와 마오타이주로 건배하는 모습.

[사진 따비]

오늘날 요리는 각 나라를 상징하는 문화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 문학부 교수인 지은이는 세계화된 여러 음식문화의 대부분이 국민국가가 건설되던 근·현대 에 국가권력·국민정체성·국제교류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작용하면서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중국요리가 어떻게 화인(華人·화교) 사회를 바탕으로 세계화됐는지를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파고든다.

지은이에 따르면 중국요리는 다면체다. 중국 본토와 홍콩·대만·싱가포르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싱가포르의 1990년대, 대만은 2010년대에 각각 해외에서 별도의 음식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처럼 특색 요리를 앞세워 중국과 다른 문화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공방외교이자 정체성의 교과다. 중국요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문화주의가 확산하고 이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서구 각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1966년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 앤드루 청(程正昌)은 미국인 입맛에 맞고 오리엔탈리즘과 이국취미를 만족시키는 현대적 중국요리를 개발했다. 그가 창업한 패스트푸드 중국요리점 판다 익스프레스는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체인을 확대했다. 호주에선 중국식 어묵·새우·튀김두

부·닭고기에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즐겨 먹는 코코넛 밀크를 넣고 태국식 커리와 함께 끓인 싱가포르계 문화융합 요리 커리락사가 인기를 끌었다. 호주가 추구하는 다인종사회를 상징하는 국민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1965년 독립 뒤 화인·말레이계·인도계 등을 단일 국민·문화로 묶을 필요가 있던 싱가포르는 음식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화인 남성과 현지 말레이계 여성 사이에 태어난 ‘프라나칸’이 양쪽 문화를 녹여 개발한 ‘뇨나 요리’를 국가대표 요리로 내세웠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32년 만주사변 이후 세운 괴뢰국 만주국의 요리를 일본 문화의 일부로 편입하려고 시도했다. 1910년대 베이징 주재 일본 기자가 만주 양고기구이를 ‘청기즈칸’으로 명명했는데, 1933년 도쿄에서 열린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 만찬의 주 요리가

됐다. 지금도 일본의 인기 요리다. 지은이는 일본의 야기교자(군만두)가 만주요리에서 비롯했으며, 교자는 중국어 자오쯔(餃子)의 만주방언이라고 설명한다. 일제침략기 조선요리는 식민지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베트남의 퍼(쌀국수)와 태국의 팟타이(볶음면)는 중국의 면 요리를 개량한 것으로, 국민음식이 된 것은 물론 전 세계로 퍼졌다. 팟타이는 20세기 들어 고조된 화인 배척과 태국 내셔널리즘의 산물이라는 게 지은이의 평가다. 쌀가루 반죽에 다진육과 목이버섯 등을 넣고 말아서 만드는 베트남 춘권 바인꾸온(春卷)은 인기가 높아 중화권으로 유입되면서 홍콩의 유명 요리인 청판(腸粉)이 됐다. 한반도에서 중국음식 하면 짜장면을 빼놓을 수 없다. 인천항 중국인 노동

자의 요리로 출발했지만 1936년 신문에 “우동 먹고 짜장면 먹고 식은 뱀도 먹어가며 그대들을 가르쳤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선인에게도 퍼졌다. 1948년 화인 왕송산(王鬆山)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사자표춘장을 출시하면서 짜장면은 한국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이제는 한국 100대 문화상징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해외로도 퍼지고 있다. 지은이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의 원조 밀가루는 한국에서 짜장면, 일본에서 라면, 대만에선 우육탕면이 국민 음식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한다. 음식문화가 인적·물적 교류, 정체성, 산업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풍부한 내용과 꼼꼼한 학인 작업이 압권이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괴테는 과학자였다 박학다식 천재열전



폴리매스
피터 버크 지음
최이현 옮김
예문아카이브

흔히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로 기억되는 괴테는 스스로를 과학자로 여겼다고 한다. 그는 여러 언어와 문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을 뿐 아니라 해부학·식물학·광물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 광학을 연구해 『색채론』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취를 이룬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폴리매스’(polymath)다. 영국의 역사학자로 『지식의 사회사』 등을 쓴 저자 피터 버크는 이 책 『폴리매스』에 고대 그리스부터 서양을 중심으로 여러 폴리매스의 놀랍고 흥미로운 면면을 전한다. 본문에도 꽤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책 말미에 15세기 이후의 명단 500명을 정리해 실어 놓았다. 수전 손택, 올리버 섉스 등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되, 살아 있는 사람은 제외한 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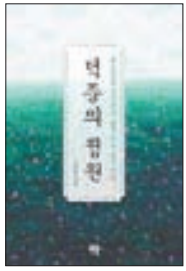
책에 따르면 폴리매스의 황금기는 17세기. 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지식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 지식의 전문화 혹은 파편화는 폴리매스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사실 박학다식한 천재박사들이 늘 경탄의 대상이 됐던 건 아니다. 폴리매스는 때론 사기꾼·협잡꾼으로 의심받았고 그 지식이 피상적이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대표적 폴리매스. 한테 저자는 그가 회화·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완성하지 못하거나 시작조차 못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벌려 놓은 일은 많은데 마무리하는 모습을 저자는 ‘레오나르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폴리매스가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폴리매스는 특히 새로운 학문의 창설 과정에 크게 기여하곤 했지만, 막상 지금처럼 학문·전공이 세분화된 시대에는 대학에도 그 실 자리가 넓지 않아 보인다. 저자는 지식의 군도에서 각각의 학문이라는 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스페셜리스트와 대비해 폴리매스처럼 박학다식한 제너럴리스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식의 전문화 과정과 그 이면, 지식 공동체의 시대별 양상 등까지 살피는 점에서 ‘지식의 사회사’로도 읽히는 책이다.

이후남 기자

책꽂이



덕종의 정원(김다은 지음, 무بل)=소용 박씨가 수양대군(세조)이 아끼던 조카 귀성군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실록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 장편소설. 훈민정음 언해본에 세조가 벌인 모반의 흔적이 감춰져 있다는 상상력을 보였다. 2010년 출간된 서간체 소설 『모반의 연애편지』를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이야기 전개가 빠르다.



그가 나를 사랑했을까(이모겐 크립프 지음, 최화정 옮김, 티타임)=영국 MZ 세대 작가의 첫 소설. MZ 세대에 대한 진단은 무성하지만 막상 그들의 정치 성향, 불안과 좌절에 대해 기성세대는 잘 모른다. MZ 세대의 세대 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보고서라고 할 만한 작품.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20대 여성 안나는 10살 많은 금융맨과 사랑에 빠진다.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 2 (강희정·김종호 외 지음, 사우)=휴양지로 유명한 세부는 항공·해운·물류의 중심지이자 필리핀에서 가톨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기도 하다. 프놈펜, 시엠립,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우뚝, 다낭, 자카르타 등 동남아 여러 나라의 수도와 관광도시 13곳을 초점으로 그 역사를 각 분야 전공 학자인 저자들이 풀어냈다.



아주 사적인 은하수(모이아 맥티어 지음, 김소정 옮김, 까치)=은하수, 즉 우리은하가 직접 들려주는 1인칭 자서전 형식의 우주 이야기. 우주의 탄생 등과 우주를 탐색한 인간 과학자들의 여정, 그리고 우주에 관한 인간의 신화와 이에 대한 과학적 내용까지 아우른다. 저자는 천체물리학 박사이자 대학에서 천체물리학과 신화학 등을 동시에 공부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 |
|---|---|---|
| <p>개인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p>사업체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 <p>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



김영선
연방세무사

“아직도 무대가 고프다” ... 최장수 시카고의 여인

배우 최정원(55)은 뮤지컬 ‘시카고’의 역사를 썼다. 2000년 ‘시카고’ 한국 초연 당시 록시로 데뷔해 2007년에는 벨마가 됐고, 24년 동안 모든 시즌에 참여했다. 장수 뮤지컬 ‘시카고’ 흥행의 주역이자 산 증인인 셈이다.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시카고’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한 가수 벨마 켈리와 내연남을 죽인 코러스걸 록시 하트의 몰락과 재기를 그린 작품. 미국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순위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2000년 초연 후 지금까지 1600회 공연, 누적 관객 166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개막한 이번 시즌은 최근 100회 공연, 객석점유율 99%를 달성하며 또 한 번 저력을 입증했다.

31세부터 55세까지 ‘시카고’와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배우 최정원을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만났다.

-‘시카고’ 초연 무대에 선 지 24년이 됐다.

“50살이 넘으니까 더 잘 보

뮤지컬 ‘시카고’ 산 증인 최정원
31세 한국 초연때 록시로 데뷔
38세 벨마로 변신, 전시즌 참여
“50세 넘으니까 연기 더 잘 보여
70세 넘어서도 무대 서고 싶어”

인다. 골프를 칠 때 장타를 치고 싶으면 힘을 빼라고 하지 않나. 뮤지컬도 힘을 빼야 힘을 줄 수 있더라. 강약조절을 해야 한다. 그걸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배우 최정원에게 ‘시카고’는 어떤 의미인가.

“출산 직후인 31세에 록시가 됐다.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그때 록시를 만나서 한국 뮤지컬대상 여우 주연

상을 받고 팬도 많이 생겼다. ‘한 번만 더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엔 벨마를 하라는 거다.”

-록시가 아니라 아쉬웠다.

“섭섭했다. 그런데 다시 대본을 읽어보니 ‘벨마가 내게 더 잘 맞는 옷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록시로 무대에 서본 경험이 벨마 연기에 도움이 됐다.

“2007년 처음 벨마를 맡았을 때 록시는 두 명이었지만 벨마는 나 하나였다. 혼자서 두 명의 록시를 상대하니 실력이 빨리 늘었다. 이때 벨마를 맡고 나서 뮤지컬 ‘맘마미아!’의 도나 역할도 들어왔다. 벨마를 만나고 크게 성장했다. 17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각별하다.”

-어둠을 뚫고 벨마가 등장하는 오프닝 장면은 늘 숨죽이고 보게 된다.

“벨마가 등장할 때 모든 앙상을 배우와 스태프들, 1000명 넘는 관객 한 명 한 명이 숨죽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적막 속에서 벨마가 ‘후’하고 숨을 내쉬면 그제야 관객들도 숨을 내뿜는 게 느껴진다. 그때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하다.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처음 두 발로 일어섰을 때의



뮤지컬 ‘시카고’를 공연 중인 벨마 역의 최정원(오른쪽), 마마역의 김영주 배우. [뉴스1]

느낌이 이렇까?”

-35년간 뮤지컬 외길을 걸었다. 드라마-영화 출연 제안도 있었을 텐데.

“아직은 무대가 더 고프다. 관객이 없는 곳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 관객에게 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신이 난다.”

-천상 무대 체질이다.

“무대 위에 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쇼는 계속돼야 한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컨디션이 나쁘면 나쁜 대로 가는 거다. 실수를 돌이킬 수도 없고 편잡할 수도 없다. 물론 포토샵도 안 되고. (웃음) 무대에 올랐을 때만큼은 연출도, 프로듀서도 아닌 배우가 왕이다.”

최정원은 극장 여서(안내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운다. “내가 무대에 설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 이란다.

-최근엔 어서들에게 편지도 썼다고.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매일 공연을 보니까 동료이자 관객이다. 뮤지컬은 팀워크인데 스포트라이트는 배우에게만 쏟아진다. 조명 스태프들은 배우를 빛나게 해주려고 두 시간 넘게 뜨거운 조명과 씨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늘 가슴이 뜨거워진다.”

-공연 전 지키는 루틴이 있다면.

“록시를 보필해야 한다. (웃음) 록시가 기분이 좋아야 나도 잘할 수 있다. 동료들과 기분 좋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서로 칭찬하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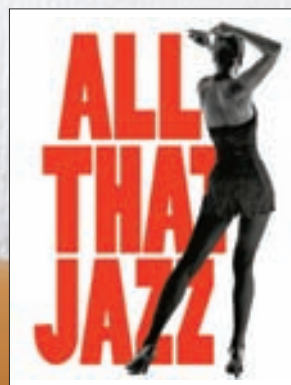
-힘들 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나.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없던 공연을 보여주고 죽자’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난다. (웃음) ‘최정원,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란 말이 나오게 공연을 하고 싶다.”

-배우 최정원의 꿈은.

“70살 넘어서도 무대에 서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

홍지유 기자



최정원은 ‘시카고’의 오프닝을 설명하면서 말로는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안무를 쳤다. “춤이 많은 작품을 좋아하는” 최정원에게 ‘시카고’는 놀이터다. 장진영 기자

블랙핑크 리사, ‘MTV VMA’ 베스트 K팝 수상... “코쿰캡”

그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베스트 K팝’ 부문을 받았다.

리사는 11일 뉴욕 UBS아레나에서 열린 ‘MTV VMA’에서 ‘록스타(ROCKSTAR)’로 ‘베스트 K팝’(Best K-Pop)을 차지했다.

‘베스트 K팝’ 부문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세븐’, NCT 드림의 ‘스무디’, 뉴진스의 ‘슈퍼 사이’, 스트레이

키즈의 ‘락’,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데자뷰’가 후보로 올랐다. 트로피를 받은 리사는 “정말 고맙다”라며 “‘록스타’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을 받은 건 나에게 큰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쿰캡”이라고 태극어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앞서 지난 2022년에도 ‘라리사(Lalisa)’로 ‘베스트 K팝’ 부문에서 상을 받아, 해당 상을 두 번이나 차지한 첫 K팝 솔로 가수가 됐다.

한편 이날 그룹 세븐틴은 베스트그룹상(Best Group)을 받았다. 세븐틴은 뉴진스, NCT드림, 콜드플레이 등 8팀의 후보를 제치고 ‘베스트 그룹’ 부문의 수상자로 호명됐다. 장구술 기자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11일 뉴욕 UBS아레나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VMA) 시상식에서 솔로곡 ‘록스타(ROCKSTAR)’로 ‘베스트 K팝’ 상을 받은 후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골마을 곳곳 명절 선물 배달 3대 집배원 가족은 '추석 산타'

1986년 체신봉사상을 수상한 고 심목섭씨(왼쪽 사진). 당시엔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가 주요 배달 수단이었다. [사진 심성호]



고 심목섭
38년 근무

심성호(아들)
34년 근무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음정·박자 다 틀려도 흥얼거리는 콧노래는 제법 신명이 났다. 경북 안동시 북후면의 논밭을 우체국 오토바이 한 대가 가로질러 달리더니 어느 시골집 앞에 멈춰섰다.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를 마저 다 부른 집배원이 헬멧을 벗으며 크게 외쳤다. “어머니, 편지요 편지요~!” 집안에서 나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캔커피 하나와 비스킷 두 개를 건넸다. “괜찮다고 해도 매번 고맙다며 이렇게 꼭 챙겨 주신다니까요.” 안동우체국 31년차 집배원 김금화(59)씨도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되면 가장 바쁜 곳 중 한 곳이 우체국이다. 평소보다 우편 물량이 10배 이상 폭증하기 때문이다. 안동우체국도 지난해 추석 때 물량이 20배 넘게 늘면서 올해도 일찌감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힘들지 않냐’고 묻자 김씨가 이마의 땀을 닦으며 답했다. “무슨 말씀요.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네 어르신 모두 이젠 한 가족이 됐거든요. 특히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매일 안부를 물으며 말벗이 돼드리는 게 일상이 됐죠.”

“남자들 직장 다 빼앗는다” 농담 아닌 농담
추석 연휴가 다가올수록 시골 마을엔 명절 선물 배달이 급증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자녀들의 직접 방문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씨 남편이자 안동우체국에서 34년간 근무한 심성호(62)씨는 “추석 때 배달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설 때도 보냈는데 뭐 하러 추석 때 또 보내노, 우리 아들이 이렇다니까’라는 자식 자랑이었다”며 “자녀들과 손주들은 못 보지만 우편물만 받아도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희 집배원들이라도 더 챙겨 드리자고 다짐하곤 했다”고 전했다.

- 연휴 때 배달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김금화-“산티미 같은 우편물을 모두 배달하고 밤늦게 귀가하면 늘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죠. 명절 음식도 같이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항상 너그럽이 이해해 주셨어요.”

김씨는 안동우체국 1호 여성 집배원이다. “예전엔 여성 집배원이 없었다 보니 헬멧만 벗으면 주민들이 신기한 듯 우르르 구경하러 모여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아버님 인기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웃음)” 김씨의 시아버지인 고 심목섭씨는 1954년부터 38년간 안동우체국에서 근무하며 ‘안동 집배원의 산 역사’로 불렸다. 이후 심씨가 91년 퇴직할 무렵 아들 심성호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집배원 업무를 시작했고 3년 후 성호씨 아내인 김씨도 집배원 가방을 둘러맸다. 그리고 올해 아들 심보욱(33)씨도 부모의 뒤를 이

3대 4명 근무기간 합치면 104년
고 심목섭씨, 40년 간 무사고 기록
아들 심성호씨, 늘 ‘먹칠 말자’ 다짐
며느리 김금화씨, 여성 집배원 1호
남편이 말렸지만 여군 출신 자신감

어 정식 집배원이 되면서 ‘3대 집배원 가족’이 완성됐다. 이들 3대 네 명의 우체국 근무 기간을 합하면 103년 8개월에 달한다.

“보옥아, 첨이라 마이 힘들제? 5kg은 안 빠졌냐. 뭐라요? 7kg이나 빠졌다고? 열심히 배달 다녔네.” 마침 보옥씨 전화가 걸려오자 김씨는 아들 건강부터 챙겼다. 그러면서 “최근 추석을 앞

두고 어르신들이 많이 적적해하시니 그냥 배달만 하지 말고 안부도 꼭 챙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배달하다 종종 마주칠 때도 있네요.
▶심성호-“아버지가 퇴직할 때쯤 제가 입사했으니 아버지와는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같이 근무해도 집배구역이 달라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내가 입사했을 때는 제가 다른 곳으



김금화(며느리)
31년 근무



경북 안동에서 3대째 집배원으로 근무 중인 ‘집배원 가족’. 왼쪽부터 아버지 심성호씨, 아들 심보욱씨, 어머니 김금화씨. 최기용 기자



심보욱(손자)
1년 근무

로 간다고 했어요.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나가도 걱정되고, 늦게 와도 걱정되고. 그런 모습만 눈에 아른거려더라고요.”

▶심보욱-“저는 아버지를 뵈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오히려 자주 못 본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배달하다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 보리차 한잔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할 만하냐. 나중에 다 도움된다’고 한마디 해주신 게 잊히질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버지 반만 해라’는 응원도 자주 들립니다.”

3대가 마주치기 어려울 법도 한 게 안동은 서울보다 2.5배나 면적이 넓다. 그러다 보니 전국 집배원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1km인데 비해 안동 집배원은 55km를 매일 달린다. “옛날엔 훨씬 더 힘들었다”며 김씨가 말을 꺼냈다. “시아버님 때는 오토바이도 없어서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셨죠. 주로 낙동강 주변 지역을 맡으셨는데 동서로 워낙 넓은 데다 비포장도로여서 새벽에 나가시면 한 밤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집배원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김금화-“자정이 다 돼서 귀가하고 또 다음날 아침 7시엔 출근하니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집배원 가족들끼리 서로 돕는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이름도 집배원을 상징하는 비둘기회로 정했죠. 시아버님도 창단 멤버 중 한 분이셨고요.” 신수민 기자

▶8면 ‘추석 산타’ 로 이어집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 화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 방3. 화 2.55/ 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 방4/ 화3.5/ 2 Assigned. 새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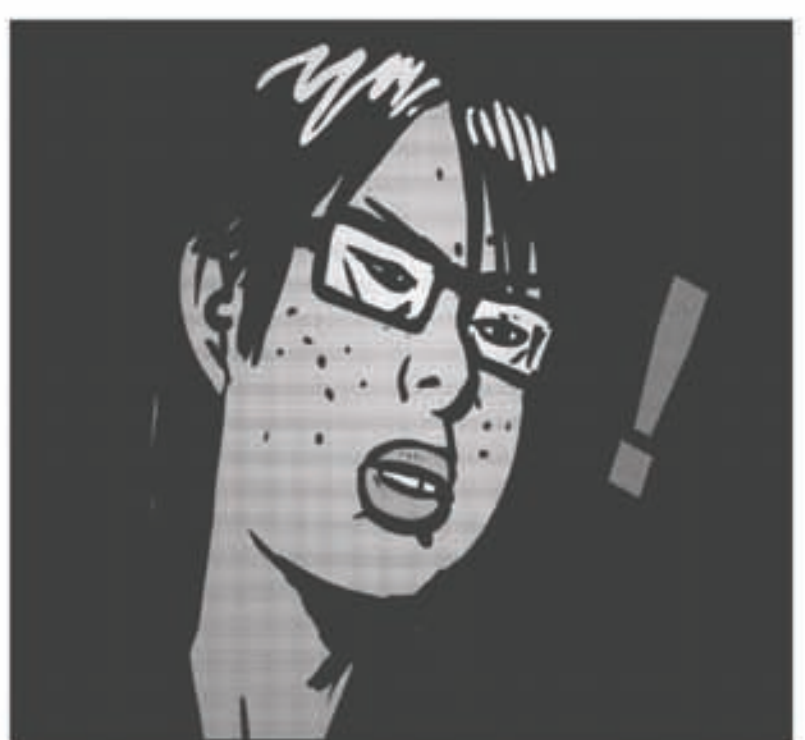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희생**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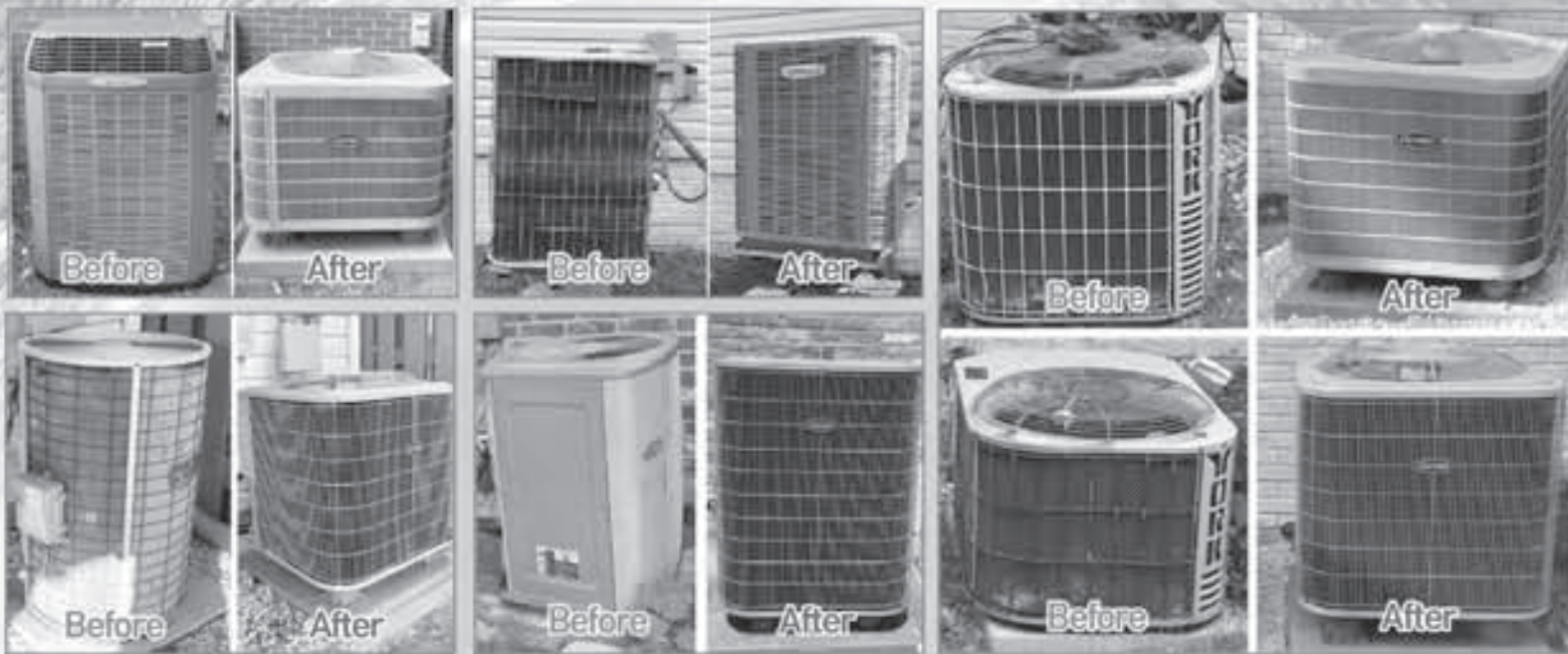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력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bby: Did you see the new Camry that Mark got?
로비: 마크가 타는 캠리 새 차 봤어요?
Clark: Yes, I saw the car that his Dad bought him.
클락: 응. 그 애 아빠가 사준 차 봤지.
Robby: I've had my eye on that car.
로비: 내가 눈여겨 보던 차예요.
Clark: Save your allowance.
클락: 용돈을 모으지 그래.

Robby: Get real Dad! That's a drop in the bucket.
로비: 아빠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 봤자 새 발의 피예요.
Clark: After the holidays I'm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클락: 연말 연휴가 지나면 적자를 면하기도 빠듯하다.
Robby: Does that mean that you won't buy me a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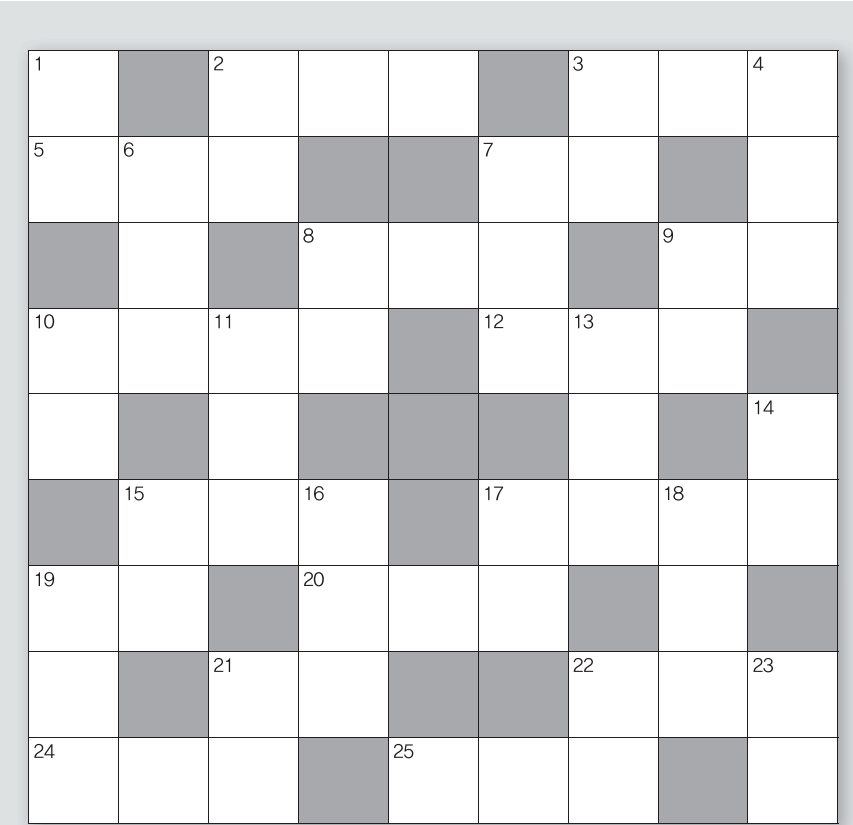
have (one's) eye on (something); (무엇을) 잘 지켜보다

(Clark is talking to his son Robby...)
(클락이 아들 라비와 이야기 하고 있다...)

기억할만한 표현

- ▶ get real: 현실성 있게 말(행동)하다.
"Get real! You don't have a chance to marry her."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그녀와 결혼할 가능성은 없어요.)
- ▶ a drop in the bucket: 새 발의 피.
"The money I make is a drop in the bucket compared to what I owe." (값야 할 빚과 비교하면 내가 번 돈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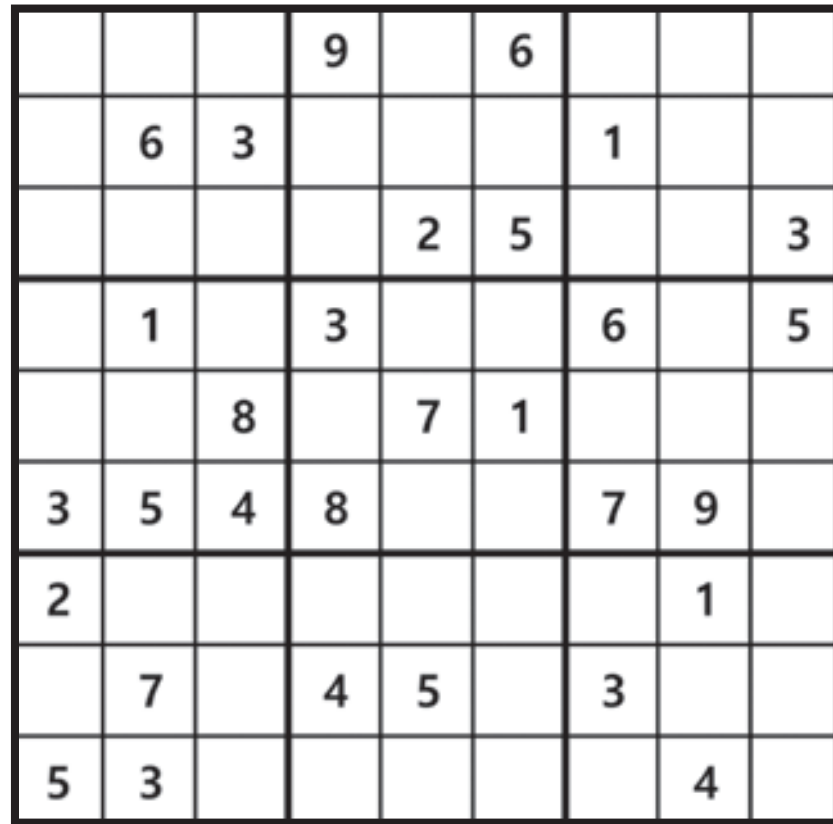
가로열쇠

(2)잡을 자면서 중얼거리는 헛소리 (3)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물체. 자석 (5)피부 위에 도도룩하게 돋은 군살 (7)매우 적은 액수의 돈. 노린동전. ~ 한 닢 없다 (8)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뽑아내는 가마 (9)오줌을 누는 일. ~가 마렵다 (10)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몹시 괴롭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음 (12)뒤가 두 갈래로 길게 내려와 제비 꼬리같이 생긴 남자의 예복 (15)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획 (17)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 (19)해수면이 하루에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것 (20)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어 주어서 극락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곳. 진도 ~. □김□ (21)해마다 한 살씩 먹지요 (22)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가장 크다. ~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24)점심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릇 (25)아기의 첫 생일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 축하를 하지요

세로열쇠

(1)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자원 ~ (2)잡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 ~가 아뜩다 (3)매우 흔함. 봄이 한창이라 들에는 꽃들이 ~으로 피어 있다 (4)쇠로 만든 낫가죽.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 (6)자연의 암벽에 새긴 불상 (7)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연회 (8)용맹스러운 사람. 참전 ~ (9)하얗게 차려입은 옷 (10)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 (11)자기 뜻대로 일어나게도 오므라들게도 할 수 있다는 몽둥이. 손오공은 ~을 휘두르며 요괴들에게 달려들었다 (13)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14)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새는 단위 (15)88세 (16)클럽에서 활동이 책 한권을 다 읽어 때었을 때 스승과 동무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 (17)굵은 나무줄기의 비늘같이 생긴 껍데기. 소나무 ~을 들춰 보니 그 안에 벌레들이 굵살대고 있었다 (18)밤에 마시기 위하여 머리맡에 두는 물 (19)새가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상태의 지도 (21)자욱을 뜻하는 불교용어. 벗어내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그 소식에 나는 천갈만길 ~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22)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23)마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매매

알짜 세택소 에이전시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렌트, 좋은 매물
주인은 특, S. 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구인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charcoal ondul 친환경 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 상담 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 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 크레딧 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 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정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 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